

택당 이식의 영물시에 대한 일고찰*

정 훈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영물시를 통해 본 택당의 의식세계 |
| 2. 영물시에 대한 연구경향 | 4.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시대를 살다간 선비들의 학문적 토양은 성리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근간은 『대학』에서 말하는 ‘삼강령 팔조목(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에 있다. ‘격물치지’는 곧 지식에 대한 추구이다.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통해 무엇이 올바른 것이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수신’은 곧 자신이 닦은 학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치국평천하’는 자신이 학문과 삶에 대한 인식을 세상에 나아가 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물’과 ‘평천하’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택당의 영물시는 1)사물의 이치에 대한 면밀한 탐색을 통하여 덕성을 완성하는 단계, 2) 외물에 내재한 본성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수신 단계, 3)출사하여서는 백성의 안위를 우선으로 하는 치자의 단계를 보인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자책감과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서 백성의 삶을 구제하지 못하는 임금과

* 이 논문은 201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3 SIA5B5A 07049736)

관리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사물에 대한 탐구, 자기수양, 관리로서의 면모 등이 잘 표현된 택당의 영물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지냈던 전형성을 보여준다. 택당의 영물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다른 시인들의 영물시가 지닌 특성들을 밝히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택당 이식, 영물시, 『대학』경문, 지식의 추구, 자기반성,
애민 의식

1. 머리말

택당 이식(李植, 1584년(선조 17)~1647년(인조 25))은 조선 중기 문인이자 정치가였다. 자(字)는 여고(汝固)이며, 호는 택당(澤堂)이다.¹⁾ 용재 이행(李衍)의 현손(玄孫)으로 중종·명종 때 활약했으며,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인 월상계 택(月象谿澤)의 한 사람으로 불린다. 노론 출신으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등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사서삼경의 사상과 정주의 성리학에 심취하였고, 문장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형성되어 전아하고도 간결하다고 하였다. 농암 김창협은 사대문장가 중에서 택당의 문장이 “인공(人工)이 깊고 결구(結構)면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찬사를 보냈다.

택당의 시문은 우암 송시열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00여 수에 이른다고 하였으나, 현재 『택당집』 1권~6권과, 속집 1~6권에 실린 시는 모두 1,871수

1) 이지형, 『택당집』 해제, 『택당집』 1권, 1-12면.

본 연구에 사용된 『택당집』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국역 『택당집』과, 홈페이지의 번역물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역자의 견해가 논자와 다른 부분은 논자의 의견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이다. 원집에 실린 시문과 속집의 시편 4권은 택당 자신이 자선(自選)한 것이고, 속집 시편의 5~6권은 문곡 김수항(金壽恒)이 선정하였다고 한다.²⁾

그간 택당 이식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범위가 넓고 크게 다룬 분야는 곧 그의 문학과 관련된 분야이다. 그리고 문장론, 시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학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한우(1996, 1997), 최태림(1998), 이한우(2004), 이상배(2009), 김현주(2009), 김우정(2011), 강민구(2012) 등이 있다. 연구자들은 택당 이식의 생애를 검토함으로써, 그의 문학관이 ‘전통적인 유자의 삶(修身과 治人)을 지향’하였으며, ‘유가적 덕목에 따른 출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택당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로는 이창룡(1981), 최태림(1989, 1993, 1996, 1999), 김덕수(2001, 2003), 김현주(2006, 2007, 2009, 2011), 손찬식(201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택당의 시가 당시풍을 견지하면서도 송시풍을 가미하였으며, 두보시를 매우 존중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기행시, 격물시, 영물시, 만시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기도 하였다.

이한우(1997), 최태림(1998), 강명관(2003) 등은 택당의 고문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 국문학사적 의의, 택당 시에 대한 제가(諸家)들의 비평 등을 다루었다. 조선 전기의 시단은 소식(蘇軾)을 위시한 송풍(宋風)이 주류를 점하다가 성종 연간부터 해동강서시파라 불리는 일군의 시인들에 의해 시의 형식미와 기력의 측면에서 그 장치를 한껏 발양하게 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성물과 험박한 수식에 주력했기에 압박함과 험박함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으며 시단의 중심은 16세기 중반부터 당풍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당풍 역시 만당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명나라에서 유입된 복고적 이론은 국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지나친 모의(模擬)의 폐단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았던 택당은 당시풍에 송시풍을 가미하여 기세가 굳세고 정치(精緻)한 형식미를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

영물시가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물의 내적/외적인 특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했을 때, 시인의 내적인 의식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영물

2) 앞의 해제, 5면.

시만큼 좋은 대상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택당의 시 가운데 영물시(詠物詩)를 대상으로 택당의 내면의식이 어떤 형태로 영물시에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영물시에 대한 연구경향

영물시란 ‘외부 사물에 대한 시인의 감흥을 표현하였다’는 것이 원론적인 정의이다. 청(淸) 유염(兪琰)은 『영물시선(詠物詩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영물시의 특징에 대해 말하였다.

詩란 意志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실은 物에서 감흥을 받아 지어진다. 詩가 物에서 감흥을 받는 것이므로 物을 體現하는 일이 工巧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物을 그려내는 일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詠物’이라는 한 詩體가 있어 物의 情趣를 다 그려내고 物의 狀態를 다 묘사하는 것이다.³⁾

유염은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의 정취를 그려내고,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영물시(詠物詩)’라고 하였다. 시인이 외부 사물에서 감흥을 받아 공교(工巧)롭게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시를 짓는 행위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영물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찾는다면, 멀리 『시경』에까지 이른다. 이후 청나라 때 편찬된 『패문재영물시선(佩文齋詠物詩選)』에서 영물의 소재를 486부로 세분하여 예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영물의 소재는 <天文, 節侯, 山, 水, 建物, 器物, 武備, 服飾, 書法, 樂器, 人間, 飲食, 樹木, 花草, 獸, 魚, 禽, 蟲> 등이다. 유염(兪琰)은 『詠物詩選』에서 天, 歲時, 地, 山, 水, 居處, 寺觀, 人, 麗人, 文, 武, 樂, 巧藝, 器用, 雜玩, 玉帛, 冠服, 飲食, 果, 穀,

3) 김만원(1988), 「중국영물시 시론」, 『중국문학』 16, 51면에서 재인용.

詩也者 發於志而實感於物者也 詩感於物而其體物者 不可以不工 狀物者 不可以不切 於是 有詠物一體, 以窮物之情 盡物之態

蔬, 花, 木, 草, 禽, 獸, 麟, 介, 昆蟲部 등으로 세분하여 열거하였다.

다양한 소재들이 영물시의 제재로 등장하면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 때문에 후대의 연구자들은 제재별로 시를 분류하면서 산수시, 전원시, 누정시, 차운시, 증시, 만시 등으로 갈래를 다양하게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결국 영물시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영물시에 대한 정의’는 사물의 범위를 어떤 범주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물의 정취와 상태 묘사에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시인과 외부 사물의 관계 등에 대해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한 것인가에 따라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임승괴(2001)는 영물시가 중국의 건안시대-제량시대-당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변화했음을 밝혔고, 김준옥(1991)은 영물시의 기원과 분류에 관한 기본개념부터 영물시가 사물을 그대로 그려내는지, 묘사하는지, 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영물시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각 시인들의 영물시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택당 이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나상근(1984), 허호구(1986) 등을 거쳐 문학론, 한시론, 독서론, 변문, 비지문 등에 대한 연구와 출처의식, 학문성향, 상춘 신희, 월사 이정구, 계곡 장유 등과의 교류관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택당의 영물시와 직접 관련된 연구로는 김현주(2009)와 손찬식(2014)⁵⁾이 있다.

김현주는 택당의 시문이 성리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성리학적 사유가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격물시는 내면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완성하려는 노력

4) 손정인(1985), 「이규보의 영물시의 제재와 내용」, 임종욱(2000), 「원천석의 영물시, 그 우의의 미학」, 안미영(2001), 「서거정 영물시의 특성 연구」, 이국진(2008), 「이학규 영물시 연구」, 정숙인(2010), 「추사 김정희의 영물시 고찰」, 손찬식(2014), 「택당 이식의 영물시 연구」, 임원빈(2014), 「피일휴의 영물시 연구」, 윤재환(2015), 「옥동 이서의 영물시 연구」 등이 있다.

5) 김현주(2009), 「택당 이식의 격물시 연구」, 『한문교육연구』 33, 손찬식(2014), 「택당 이식의 영물시 연구」, 『어문연구』 82.

에서 나온 산물이며, 학자(學子)로서의 자기반성과 치자(治者)로서의 도학적 사유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김현주는 ‘격물(格物)’에서 ‘물(物)’이란 ‘인사(人事)와 개별 사물을 모두 포함한 것’⁶⁾이라고 정의하여 ‘영물의 소재’가 산수자연에서 인간만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김현주의 이러한 범위설정에는 영물의 대상을 무한한 것으로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손찬식은 택당의 영물시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영물시 연구와 다른 시인들의 영물시 연구를 참조하여 영물시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그래서 설정한 영물시의 범위⁷⁾는 1)작품의 제명(題名)이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작품의 제명이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영물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 영물시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3)작품의 제명은 사물과 관련이 없지만 내용상 영물인 경우에는 영물시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택당의 영물시는 모두 38제 76수가 되고, 시형식 면에서 5언율시와 7언절구가 36.8%를 차지하고 있다. 소재적 특성으로는 자연현상 5종, 동물 6종, 곤충 2종, 식물 16종, 무생물 6종, 물고기 1종 등으로 식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손찬식의 경우, 영물시의 범위 설정에서 있어서 범위설정을 매우 정교하게 설정하였다. 『택당집』에 실린 총 1,871수 가운데 영물시로 38제 76수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시의 4%에 불과하다. 영물시가 4%에 불과한 이유는, 영물시의 범위에서 자연현상을 제외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사물’, 혹은 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매우 좁게 영물시의 범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영물시에서 대한 논의에서, ‘물(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사물이며, 어떤 형태를 지닌 존재로 단일한 사물을 가리키는 경향이 강하다. 천상(天象), 동식물, 기물(器物), 인간, 혹은 인간의 신체 등 구체적 사물에 대해 작자가 시로 읊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그 사물의 형상과 자신의 의식을 결합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물시’라고 할 수 있다. 영물시는 대체로 식물류를 영물시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규

6) 김현주(2009), 앞의 논문, 409-411면.

7) 손찬식(2014), 앞의 논문, 102-104면.

보의 경우 약 580수의 영물시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시가 식물류이고⁸⁾, 목은 이색의 경우 약 400여 수의 영물시 가운데, 47수의 인공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자연물이었고, 자연물 가운데 130여 수가 식물류이다⁹⁾. 영물시의 소재 가운데, 식물류가 가장 많이 채택이 된 이유는 영물시의 성격과 식물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특성이 서로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하고 구체적인 소재이면서, 인간만사와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상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식물류가 영물시로 많이 채택된 듯하다.

3. 영물시를 통해 본 태당의 의식세계

태당의 시문에 대해, 최태림(1989)은 첫째, 광해군의 폭정,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 등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처자들의 무능한 정치로 시달리는 백성의 질곡과 근심을 나타낸 시, 둘째는 이러한 시대상에 있어서 원래 산수벽이 있던 태당이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귀전(歸田)코자 하는 심정을 토로한 시들로 분류¹⁰⁾하였다. 한편 김덕수(2013)는 사회의 모순이나 병폐를 표달하고자 했으나, 위태로운 시기를 살고 있었기에 감히 직설하지 못하고, 풍자의 방법으로써 드러냈고, 이러한 점은 태당의 일부 작품이 의론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¹¹⁾ 김현주(2009)는 ‘격물(格物)’이라는 측면에서 태당의 시를 ‘수기(修己)’의 시와 ‘치인(治人)’의 시로 구분하였다. 손찬식(2014)은 태당 시의 특성을 1)출처의식의 형상, 2)자아의 불우한 현실적 상황의 형상, 3)애민의식의 형상으로 분류하였다.¹²⁾

8) 손정인, 「이규보의 영물시의 제재와 내용」, 『영남어문학』 12.

9)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다운샘, 2009. 65-66면.

10) 최태림(1989), 「태당 이색의 시세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9면.

11) 김덕수(2003), 「태당 이색의 시세계」, 『한국한시연구』 11, 255면.

12) 태당의 영물시를 분석하는 관점을 설정함에 있어서, 김현주는 ‘격물’이라는 것에

조선시대는 성리학자들의 시대였고, 이들은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사상적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책이 『대학』이다. 『대학』은 ‘대인지학(大人之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태학에서 가르친 글이다. 정자(程子)는 『대학』은 “공자가 남긴 글로 처음 배우는 자가 덕에 들어가는 문이요”라고 하면서, 이후 『논어』, 『맹자』가 그 다음이 되니, 배우는 자가 『대학』부터 배울 것을 강조¹³⁾ 하였다. 『대학』의 핵심은 삼강령(明明德, 新民, 止於至善)과 팔조목(格物致知, 誠意正心,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에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밝은 덕(明德)을 밝혀서, 자기 마음을 밝고 바르게 닦고, 백성들을 공경하면(新民),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는 치자(治者)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팔조목은 삼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명덕을 밝히기 위해서 격물치지를 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이러한 사고체계를 영물시에 적용하면, 세 가지 유형을 밝혀낼 수 있다. 첫째는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고 그 안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형식의 시이다. 이 단계는 사물을 관찰하여 진리에 이른다는 ‘격물치지’의 정신에 해당한다. 둘째는 자기 반성과 관련된 형식의 시이다. 외부사물의 영향을 받아,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수양하는 ‘수신’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격물치지와 수신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로 ‘제가평천하’에 해당하는 형식의 시라고 할 수 있다. 제가평천하는 곧 수신이 이루어진 결과물로, 애민정신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택당의 영물시는 이러한 유자의 사상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에

초점을 두어, 시작(詩作)의 시발점을 중시하였다. 손찬식(2014)는 출처의식, 불우, 애민 형상 등 치인(治人)을 중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13) 「대학」, 경문 1장

자정자(子程子)가 말씀하셨다. “《대학(大學)》은 공씨(孔氏)의 남긴 글이니, 처음 배우는 자가 덕(德)에 들어가는 문이다. 지금에 옛 사람들이 학문(學問)을 한 차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유독 이 편(篇)이 남아 있음을 의뢰하고, 《논어(論語)》와 《맹자(孟子)》가 그 다음이 되니, 배우는 자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배우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子程子曰 大學 孔氏之遺書而初學入德之門也 於今可見古人爲學次第者 獨賴此篇之存 而論孟次之 學者必由是而學焉 則庶乎其不差矣

본고에서는 사물의 관찰과 지식의 추구를 통한 격물치지와 관련된 시,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수신의 시, 백성을 다스리고, 평천하를 하기 위한 애민 의식의 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택당 영물시의 특성과 의식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물의 관찰을 통한 삶의 이해

외부에 있는 사물을 시인이 인식하고, 그것을 시적형상화 작업을 통해 묘사하는 영물시의 특성상,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뚜렷하고 표현하기 좋은 대상물일수록 영물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식물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화가 많지 않은 대상물, 혹은 누정이나 바위, 칼 같은 무생물을 대상으로 시를 읊은 경우가 많다. 택당의 경우, 복숭아, 대나무, 국화, 진달래 등 식물류와 말, 제비 등의 동물류, 우박, 눈, 비, 달 등의 자연현상에 대한 감상 등이 있다.

새벽에 눈 뜬 빈집 이슬 기운 하도 맑아	晨起虛堂露氣清
미투리 급히 꿰어 차고 못가로 나갔어라	急穿芒屨傍池行
무심히 핀 봄꽃들도 기쁘다마는	等閑春物還堪喜
바위 틈새 배죽 솟은 창포 한 줄기	石齒菖蒲長一莖 ¹⁴⁾

1605년 그의 나이 22세에 연못가에 핀 창포를 노래한 시이다. 시의 모든 내용은 곧 ‘창포 한 줄기’로 집약된다. ‘새벽, 빈 집, 맑은 이슬’ 등은 모두 청정함을 상징한다. ‘새벽’은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오는 신선함, ‘빈 집’은 번잡함이 사라진 고요함, ‘맑은 이슬’은 그러한 정화가 실제적으로 구현된 대상물이다. 고요한 적막을 깨고 시인은 급하게 신발을 신고 연못가로 나간다. 연못가로 가는 사이에 하나 둘씩 피어있는 봄꽃들도 반갑지만, 실제 시인이 찾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돌 틈 사이로 피어 난 창포이다. 돌을 비집고

14) 『택당집』 권1, 「池上」 乙巳.

빠죽 솟아난 창포를 통해서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명력과 돌을 뚫고 피어난 자연의 신비를 보고자 함이다.

무거운 돌틈 사이에서 솟아난 창포는 그 뿌리를 캐어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선약이기도 하다. 또한 송나라 때 시인 사방득(謝枋得)은 『창포가(菖蒲歌)』에서 ‘절조(節操)’가 있는 식물이라고 하였다. 택당의 시를 보면, 20세 이전에 병약하여 과거를 포기한 적도 있다.¹⁵⁾ 병약함을 치료함과 동시에 자신의 절조를 드러낼 수 있는 창포는 그래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잡다한 세상만사 그저 한바탕 웃음거리	萬事悠悠一笑揮
사립문 닫은 초당에 봄비 촉촉이 내리네	草堂春雨掩松扉
짜증나네 발 밖에 새로 돌아온 제비	生憎簾外新歸燕
공연히 일없는 사람에게 시비 겉듯 지지배배	似向閑人說是非 ¹⁶⁾

이 시는 택당이 여가에 한거하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봄날을 맞아 새로 돌아온 제비를 노래하였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봄날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초당에서 한가로이 제비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한가로이 지내기에 세상만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기에 잡다한 세상만사라는 것이 한바탕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시인은 공연히 제비가 지지귀는 소리에 짜증이 난다. 일없이 한가한 사람에게 와서 세상사의 시비(是非)를 지껄이기 때문이다. 시비(是非)는 곧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맹자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지(智)의 실마리라고 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혜는 곧 시비(是非)를 가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이다.

양월이 돌아옴에 가관의 재 들썩들썩 葭管動良月

15) 이와 관련된 시들로는 권1, 「夜坐有感 時有大比. 余以病不赴」, 「將赴嶺南. 題京舍壁上」 등이 있다.

16) 『택당집』 권1, 「永新燕」.

산빛도 어찌 추운지 문 꼭 닫고 앉았어라	山寒密掩扉
세찬 바람 눈 싸라기 이리저리 몰고 가고	滾風霏細屑
술잔 속에 비치는 맑은 달 그림자	承月皎清輝
산골짜기 솔과 대 꿩꿩 얼어붙고	大壑松筠凍
빈 숲의 참새 떼들 굶주리리라	空林鳥雀饑
구구하게 엽서의 시 읊어 본다만	區區賦鹽絮
기막힌 이 자연 현상 표현을 못하겠네	未可語天機 ²⁰⁾

눈(雪)을 노래한 시이다. 아주 추운 겨울 저물녘에 첫눈이 내렸다. 날씨가 몹시 추우면, 눈은 싸라기처럼 몽쳐서 흩날린다. 바람결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눈발을 시인은 따뜻한 방안에서 술을 마시며 바라보고 있다. 한쪽으로는 달이 떠오르고, 추위에 솔과 대나무가 다 얼어 붙었으니, 참새 떼들은 이 혹독한 겨울세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다. 경련에서는 보이는 대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까지 시선이 확대되어가는 택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문에서 대나무와 소나무는 절개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 대나무와 소나무는 절개를 상징하지 않고 있다. 미련에서 말하는 ‘엽서(鹽絮)’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진(晉) 나라 사안(謝安)의 조카 사랑(謝朗)은 눈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는 “소금을 공중에 뿌려 놓은 것에 그르대로 비유할 만하다.[散鹽空中差可擬]”라고 하고, 이에 대해 질녀인 사도운(謝道韞)은 “버들강아지가 바람에 날린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未若柳絮因風起]”고 한 고사가 전한다.²¹⁾ 미련에서의 이 말은 곧 자연을 자연자체로 바라보고 있는 택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택당의 영물시 가운데 사물을 관찰하여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격물치지와 관련된 시들은 대체로 사물의 형상을 묘사하고, 사물을 사물 자체로 보려는 의식이 강하다. 하나의 사물을 통하여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의식을 투영하기보다는 사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이해하기에, 시상 전개 중심이 시인보다는 사물에 있다.

20) 『澤堂集』 권1, 「雪」.

21) 『晉書』列女傳 王凝之妻謝氏, 국역 『택당집』에서 고사 재인용.

3.2. 치열한 자기반성과 수양

조선시대 사대부라면, 수신(修身)과 평천하(平天下)가 둘로 나뉠 수 없다. ‘수신’과 ‘평천하’ 가운데 행하기 쉽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이다. 몸을 닦는 행위인 수신은 타인의 눈에 보인다. 하지만 수신(修身)의 본 뜻이 몸을 닦는 것일 수 없다. 진정한 수신(修身)은 곧 마음을 닦는 것이지만, 마음을 닦는 행위인 수심(修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심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으로 형상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택당은 마음을 수련하면서 그것을 형상화하여 걸로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로 ‘벽(壁)’과 ‘절기(節氣)’를 선택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통(感通)이 가능함은	物緣情境感能通
신묘한 마음 샘물 끝없이 솟아 나옴이라	神妙心源應不窮
정중동(靜中動)의 그 이치 알고자 하거든	欲識靜中含動意
문 닫고 하루 종일 솔바람 들어 보시라	閉門終日聽松風 ²²⁾

택당 이식은 1584년(선조 17)에 태어났다. 임인년은 1602년으로 그의 나이 19세 때이다. 택당에게 있어서, ‘벽’이란 대상물은 사방이 막혀 있는 존재물로서의 벽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고, 깨달음을 표시할 수 있는 투사할 수 있는 하얀 종이와 같은 존재이다.²³⁾

‘감통(感通)’이란 허령(虛靈)한 자신의 마음으로 느껴 천하 만물의 이치를 통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상(上)에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서 느껴 마침내 천하의 사리를 통달한다.[寂然不動 感而遂通 天下之故]”라고 하였다. 사물과 감통하게 되면 신묘한 마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사물을 대응함에 무궁하게 된다. 이러한 이치는 곧 ‘정중동(靜中動)’의

22) 『택당집』 권1, 「題座壁」 壬寅.

23) 벽과 관련된 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권: 「題座壁」, 「將赴嶺南題京舍壁上」, 「題寓舍壁」, 6권: 「題船壁」, 속집1권: 「除夜題壁」, 「題主家壁」, 속집2권 「偶題弓院主人壁」 외.

경지에 이른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물에 하나하나 응대하여 주지만, 응대해 주는 주체는 제자리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곧 천지만물에 ‘정중동’ 아닌 것이 없게 된다. 문 닫고 하루 종일 듣는 시끄러운 솔바람 소리에도 고요한 천지자연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 젊은 나이에 이룬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는 씩씩한 기상과 자신감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세상을 거스르다 세상에 끌려 다니고	逐俗仍牽俗
시운(時運)을 만났어도 시세(時勢)에 영합 못하는 몸	逢時不入時
글공부했던 것이 도리어 병통이라	斯文還是病
우리들 결국은 바보가 되고 말겠구나	我輩竟成癡
서울에서 어찌 몸을 굽신거리리요마는	城闕身何枉
산림에 파문힐 그 계책 자꾸 늦어지나니	山林計又遲
공연히 독왕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서	空將獨往語
부질없이 십 년 동안 시만 즐곤 써 댔구나	做却十年詩 ²⁴⁾

미련의 내용으로 보아, 광해군 시대 북인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벼슬길에서 물러나있던 시절에 쓴 것으로 보인다. 택당은 26세 때인 1610년(광해 2)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그러나 1618년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정계에서 벗어나 경기도 지평(현재의 양평)으로 낙향하여, 택풍당(澤風堂)을 짓고 살았다. 시운을 만났다는 것은 곧 벼슬길에 나섰다는 것이고, 시세에 영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뜻이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 했던가. 글공부했던 것이 도리어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 어쩌다 서울에서 몸을 굽신거리며 벼슬을 하고 있다가, 공연히 ‘독왕(獨往)’이란 한마디 말로 벼슬을 그만둔 지가 어느새 10여 년이 흘러가게 되었다. 독왕(獨往)이란 『장자(莊子)』 『재유(在宥)』편에 나오는 말로,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 또한 『회남자(淮南子)』에 “강과 바다, 산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천지를 가볍게 여기고 만물을 잔달게 여기면

24) 『택당집』 권1, 「題寓舍壁」.

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였다.”²⁵⁾라고 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택당은 다시 벼슬길에 나섰다. 택당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들뜬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군자의 모습으로 현현(顯現)하는 것은 곧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어찌하여 상림원(上林苑)에 날아가지 않고서	不向上林飛
보아 주는 이 없는 텅 빈 산에 사는가	空山見者稀
티끌 먼지 일찌감치 벗어난 뒤로	塵埃身早脫
비와 이슬로 배 채우니 항상 허기지누나	雨露腹長饑
부디 입 다물고 조심하시라	慎密須緘口
뭔가 도모하면 살기가 닥쳐오리니	經營有殺機
불평하며 서로들 노래하다가	嚶鳴不平事
가을 오면 어디로 돌아가리	搖落且安歸 ²⁶⁾

이 시는, 매미를 노래하여 이상고(李尙古)와 이상보(李尙輔) 형제에게 부친 시이다. 형제가 보내 온 편지에 ‘매미소리가 나무숲에 가득한데, 산골의 하루가 마치 일 년만 같다.’고 해서 시의 내용도 이렇게 썼다고 한다.

전통회화에서 매미는 ‘선비의 모습’을 상징한다. 매미의 곤개 뺨은 입이 선비의 갓끈과 같아서 마치 학문에 뜻을 둔 선비의 모습을 닮았고, 사람들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먹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따로 집을 짓지 않고 사니 검소하고, 가을이 오면 노래를 그치니 신의가 있고, 깨끗한 이슬과 나무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고 한다.²⁷⁾ ‘매미소리가 나무숲에 가득하다는 뜻은 훌륭한 선비들이 궁궐밖에 많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들은 곧 상림원

25) 『장자』 재유편 : 상하 사방을 드나들고 온 천하를 유람하면서 홀로 오고 홀로 가는 것을 나 자신의 삶이라 한다.(出入六合 遊乎九州 獨往獨來 是謂獨有)

『회남자』 : 강과 바다, 산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천지를 가볍게 여기고 만물을 잔달게 여기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江海之士 山谷之人 輕天地 細萬物而獨往也).

26) 『택당집』, 권2, 「詠蟬」, 來書云蟬聲滿樹。山日如年。想得一般意味。故云云.

27) 매미의 오덕(五德) : 중국 진(晉)나라 때 육운의 「한선부(寒蟬賦)」에 나옴.

(창덕궁 후원)에 날아가서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주는 이 없는 텅 빈 산에서만 울어댄다.

보아주는 이 없는 텅 빈 산은 곧 택당이 은거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함련의 ‘티끌먼지’, ‘비와 이슬’ 등은 조정에서 버림받은 선비들의 궁핍한 삶을 말한다. 명색이 좋아 청렴하다고 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지라 무슨 일을 도모해서 살림을 펴게 하고 싶다. 하지만 택당은 이마저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련의 ‘입 다물고 조심하고, 뭇가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삶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소주(屠蘇酒) 억지로 마시는 늙은 이 몸 부끄러워 열 세 잔 마시고서 열 네 잔 째 콩죽 달게 드시는 어머니 계신 게 다행이요 여기에 또 자손 모습 떠돌이 생활도 위로되네 박봉(薄俸)에 매인 몸 마음은 늘상 고향 생각 자취는 계약에 빠졌어도 본심은 충직했더라오 나의 일편단심(一片丹心) 천고의 일을 아시는지 새벽 등불 꺼지면서 동쪽 해 불끈 솟네	屠蘇強飲笑衰翁 第十三盃十四中 幸有母親甘啜菽 更多兒息慰飄蓬 心思畝畝躬微祿 迹陷機鋒計本忠 一片忱誠千古事 曉燈纔黑日昇東 ²⁸⁾
---	---

택당은 제야, 선달처럼 새해를 맞이하거나 특별한 날이면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는 제야(除夜)를 맞이하여 뜻한 것을 적은 시이다. 기련의 ‘도소주(屠蘇酒)’는 설날 마시는 약주(藥酒)를 말한다. 설날 아침 가족 모두가 의관을 정제하고 모여 어른에게 차례로 도소주 술잔을 올린 후, 나이 어린 사람부터 일어서서 나가는 풍습이 있었다. 열서너 잔을 마셨다는 것은 곧 자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부모구존(父母俱存), 형제무고(兄弟無故)가 삶의 첫 번째 가는 즐거움이라 했다. 함련의 ‘콩죽을 달게 드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는 것을 기뻐함이다. 그러기에 관리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박봉에 시달려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미련의 ‘천고의 일(千古事)’이란 두보가 ‘우제(偶題)’라는 시에서

28) 『택당집』 권4, 「除夜書志」.

‘영원히 불후(不朽)하게 될 문장’이라고 말하였다. 택당 역시 문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일편단심으로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었고, 새벽 등불이 꺼질 때까지도 문장쓰기에 골몰하였다.

뒤숭숭한 마음으로 밤새 앉았다가	忽忽坐終夕
흐릿하니 졸린 눈으로 새벽을 맞네	昏昏睡到晨
육신은 세월 따라 늙고 병들고	形骸從老病
세월은 겨울 지나 봄이 되었네	曆紀任冬春
도부의 축문(祝文)도 쓸 데 없고	不用桃符祝
새해의 백엽주(柏葉酒)도 욕심나지 않네	休耽柏葉新
그저 마음에서 바라는 것은	惟須方寸內
본래 진면목(眞面目)을 빨리 알았으면	早認本來眞 ²⁹⁾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밤이 되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니 뒤숭숭하고 흐리멍텅하다. 세월을 따라 육신이 늙어가니,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해도 감흥이 없다. 그러니 함련에 있는 사기(邪氣)를 막는다고 하는 ‘도부축문’이나 새해를 맞이한 기념으로 마시는 ‘백엽주’에도 흥미가 없다. 다만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방촌(方寸))은 좀 더 일찍 본래의 진면목을 체득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택당은 젊은 시절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혹은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자기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야와 같이 특별한 날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한도 하고 다짐도 하였다. 격물치지에 해당하는 시들과는 달리 자기수양에 관한 시들은 시상의 전개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3.3. 관리로서의 바람과 비판

택당은 영물시의 소재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고, 벗들에게 경계의 목소

29) 『택당집』 권6, 「除日」.

리를 내기도 하고, 또한 관리로서 이루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반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연류의 경우, 백성들을 근심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어 사대부이자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월굴 서쪽 막 나온 대완의 명마	宛馬初從月窟西
의기 한껏 뽐내면서 임금을 위해 울어 대네	飛揚意氣爲君嘶
차가운 날씨 교외에서 마음껏 풀을 뜯다가	天寒却放東郊草
도성 거리 치달리는 멋진 모습 보여 주리	坐看長楸入萬蹄 ³⁰⁾

완(宛)은 옛날 서역 36국의 하나였다. 한(漢) 나라 장건(張騫)이 그곳의 한 혈마(汗血馬)에 반한 나머지 천마(天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명마들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한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명마들이 의기를 뽐내며 임금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울부짖는다. 차가운 날씨와 교외는 곧 선비로 활동하던 시기를 말한다. 야인(野人)으로서 마음껏 학문을 갈고 닦다가 급제하여 임금을 위해 일할 때는 대부(大夫)로서 도성 거리를 멋지게 치달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택당의 이 시에는 새로 47인의 급제자가 난 것을 보고, 급제자들이 뛰어난 명마처럼 생기발랄하고 기운찬 모습으로 관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여름 장마 그대로 가을장마로	夏雨仍秋雨
어떡하면 태양을 볼 수 있을까	何由見太陽
처음에는 음기(陰氣) 불순(不順) 정도로 보았는데	始疑陰作沴
이제는 상전(桑田)이碧海(碧海)될까 겁이 나네	還懼海翻桑
조석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성상을 위해	宵旰憂虞軫
조정에서 좋은 계책 물론 내놓겠지만	巖廊計策長
끝내 용납되지 못한 오만한 나의 의견	迂儒終謬見
그래도 충정(衷情)만은 변함없다오	耿耿只衷腸 ³¹⁾

30) 『택당집』, 권1, 『宛馬』.

31) 『택당집』, 권2, 『苦雨』 三首○時直玉堂.

지독하게 내리는 장맛비를 노래한 시이다. 여름부터 시작된 장마가 그대로 가을까지 이어지니, 도통 태양을 볼 수가 없다. 처음 생각에는 단순히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비가 오려니 생각했는데, 계속 이어진 장마로 인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비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임금을 위한 계책을 마련하여 내놓았지만, 자신의 계책은 오황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충정만은 변함없음을 드러냈다. 가뭄, 장마, 우박과 서리, 가을비 등 자연류의 사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택당의 영물시 가운데 자연현상류는 ‘눈, 우박, 비, 달, 구름’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소재로 채택된 것이 ‘비’이다. 시인에게 있어 ‘비’는 감성을 드러내기 쉬운 소재로, 택당은 ‘비’를 통해서 ‘애민’의식을 적극 표현하였다.

지긋지긋한 여름가뭄 산에 풀포기 하나 없다
가을 들어 푸릇푸릇 생기 돋는가 싶더니
황량한 밭에 또 퍼붓는 열흘 비에
한 말 쌀 값 아무래도 천 냥은 쥐야 할 듯
게다가 군수 물자 수송이 급하다고
세무 관리 장부 들고 문 앞에 버티 쫓나니
도망치면 연좌죄(連坐罪)로 이웃에 폐될까 봐
방안에서 부부끼리 마주 보고 우는구나

夏旱不堪山濯濯
秋來纔見草鮮鮮
荒畦又苦十日雨
斗米欲放千緡錢
沉聞軍興轉輸急
差科簿吏當門立
連逃更恐罪連保
室中夫妻相對泣

치달리는 천둥 번개 어찌 그리 요란한지
어둠침침한 하늘과 땅 먹구름 뒤덮었네
남촌(南村) 북촌(北村)없이 제멋대로 흐르는 물
깜깜해라 지금이 낮인가 밤중인가
사방에 사람 하나 없이 눈엔 그저 흑화(黑花)뿐
상마다 새는 빗물 멈출 기미 전혀 없네
그 누군가 큰 집에 앉아 기분 좋은 낫빛으로
쳐마 밭의 하얀 명주 드리운 구경을 하는 자는

雷車電轂驅紛紛
天地泱泱皆玄雲
亂流已失南北巷
昏陰不識宵晝分
四壁無人眼花黑
牀牀屋漏無停息
誰居廣廈自歡顏
坐看華簷白練直³²⁾

32) 『택당집』 권1, 『秋雨嘆』.

가을에 내리는 비를 보고 탄식한 내용으로, 모두 3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산과 들에 풀 한 포기 없었다. 그나마 가을이 되어 조금 풀이 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가을폭우가 찾아왔다. 예로부터 천기가 불순함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잘못을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고, 천자가 직접 기우제를 지냈다. 임금의 실정은 곧 함련에서 나타난다. 가을에 전쟁을 일으키고,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한창 가을걷이에 힘써야 할 장정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 불쌍한 부부가 밤사이 도망을 칠 수도 있으면만 연좌제로 인해 이웃들을 고생시킬까 봐 도망도 치지 못한 채 서로 울고만 있다. 가난하고 못사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모습이다.

어둡침침하게 하늘과 땅을 가득 덮은 먹구름은 천둥번개도 요란하게 몰아치며 낮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를 쏟아낸다. 폭우 때문에 밤낮을 구분할 수 없고, 쏟아져 내린 빗물은 남북 구분없이 제멋대로 흐른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선은 멀리까지 뻗지 못한다. 사방은 멀리까지 보이지 않고, 침상에 새는 빗물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흑화(黑花)’는 눈 앞에서 꽃이나 모기와 같은 것이 얼른얼른하게 보이는 안과질환이다. 관리의 시선은 혼란한 상황을 꿰뚫고 멀리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 미련해 보이는 관리의 모습은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인다. 큰 집에 편안히 앉아서 처마 밑으로 하얀 명주가 드리울 정도로 비가 장대하게 내린다고 좋아한다. 앞의 시에 나오는 부부와 뒤의 시에 나오는 관리를 대비시켜, 부부의 한없는 슬픔과 세상물정 모르는 관리의 무능함을 대비시켰다.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택당의 시는 자신의 모습보다는 외부사물을 관찰하고 공감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평천하에 대한 사대부의 한계는 자기 스스로 평천하를 이룰 수 없고, 반드시 임금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택당은 임금을 보필하여 충정을 보이기도 하고, 관리로서 백성의 아픔을 살피는데 노력하였다.

4. 맺음말

조선시대를 살다간 선비들의 학문적 토양은 성리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근간은 『대학』에서 말하는 ‘삼강령 팔조목(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에 있다. 태당의 영물시 역시 이러한 사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격물~평천하’는 크게 ‘격물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나눌 수 있다. ‘격물치지’는 곧 지식에 대한 추구이다.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통해 무엇이 올바른 것이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수신’은 곧 자신이 닦은 학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뜻이다. ‘치국평천하’는 자신이 학문과 삶에 대한 인식을 세상에 나아가 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물’과 ‘평천하’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다.

태당의 영물시는 자연에 은거하거나 조정에 출사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면밀한 탐색을 통하여 덕성을 완성하기를 도모했다. 외물에 내재한 본성을 깨달아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본성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고요한 밤에 벽을 마주보며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온 삶을 반성하기도 하고, 하나의 사물을 마주하여 자신의 삶을 투영하기도 하였다. 출사해서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백성을 우선으로 하는 치자(治者)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펴서 백성의 삶을 구제하지 못하는 임금과 관리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사물에 대한 탐구, 자기수양, 관리로서의 면모 등을 표현한 태당의 영물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지녔던 사고방식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태당의 영물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다른 시인들의 영물시가 지닌 특성들을 밝히는 데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 식, 『택당집』
이지형 역, 『택당집』, 민족문화추진회, 2002.

2. 단행본 및 논문

-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만원, 「중국 영물시 시론」, 『중국문학』 16, 1988.
-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다운샘, 2009.
-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준옥, 「영물시의 성격고찰」, 『한국언어문학』 29, 1991.
- 김현주, 『택당 시의 사유와 형상』, 다운샘, 2012.
- _____, 『택당 이식의 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_____, 「택당 이식의 격물시 연구」, 『한문교육연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407-436면.
- _____, 「택당 이식의 시에 나타난 출처의식」, 『한문학논총』, 24, 근역한문학회, 2006, 79-108면.
- 손정인, 「이규보의 영물시의 제재와 내용」, 『영남어문학』 12.
- 손찬식, 「택당 이식의 영물시 연구」, 『어문연구』 82, 어문연구학회, 2014, 99-132면.
- 이상배, 「택당 이식의 삶과 현실인식」, 『강원문화연구』 28, 강원문화연구소, 2009, 109-131면.
- 최태림, 『택당 이식의 시세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_____, 「택당 이식의 생애를 통해서 본 한시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 한국사상문화학회, 1999, 25-72면.

3. 기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Abstracts】

A study on Yeongmulsi(詠物詩)
in Taekdang(澤堂) Lee-sik(李植)

Jeong Hun

A man of distinguished lineage(士大夫) fe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DaeHak(大學)> ideology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DaeHak(大學)> has three main principles and eight article. These three main points are search for new knowledge(格物致知), self-discipline(自己修養), governing of a country(治國平天下). Taekdang(澤堂) Lee-sik(李植) was born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refore he fe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DaeHak(大學)> ideology. We can analyze his Youngmulsi(詠物詩) with the <DaeHak(大學)>'s ideology.

First, he started a detailed analysis of the matters and expressed a principle of the things with his Youngmulsi. Through the acquired knowledge, he expected to improve his self-consciousness. Ultimately, he gave a demonstration of a man of distinguished lineage's life and a public servant's responsibility. In addition, he denounced the corrupt politicians and exploitation by privileged power. He described the people who suffered from a natural disaster like drought, run of wet weather.

Taekdang's Youngmulsi showed us an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the things, such as self-discipline and, a public servant's responsibility. It seemed like the stereotype of written accounts when we really approached it at the level of the typology of the Youngmulsi in the

Joseon period.

Taekdang's Youngmulsi have the notable features of Youngmulsi, so it can be a part of the criteria in evaluation of another Youngmulsi.

Key words : Taekdang(澤堂) Lee-sik(李植), Youngmulsi(詠物詩), <DaeHak(大學)>'s ideology, search for new knowledge (格物致知), self-discipline(自己修養), governing of a country (治國平天下)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